

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 국토교통부 | <h1>보 도 자 료</h1> | |  |
| | 배포일시 | 2021. 2. 13.(토) / 총 4매(본문4) | |
| 담당 부서 | 주거복지정책과 | 담당 자 | • 과장 김명준, 사무관 박승연, 주무관 최단비 • ☎ (044) 201-4740, 4868 |
| | 공공택지개발과 | 담당 자 | • 과장 김철기, 사무관 이태진, 주무관 임현수 • ☎ (044) 201-4443, 4550 |
| 보 도 일 시 | | 2021년 2월 13일(토) 11:00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지면 조·석간 구분 없음) | |

쪽방·고시원 주거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.

꺽뽕 0주·인정적 정착 위해 선뵁0주 선뵁순환 추진·중분한 의견 수렴·협의 토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올해 쪽방·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,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이를 위하여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협업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·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.
- 이에 따라,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,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(사업구역 30개 시·군·구)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(21.1.7)하였다.

<21년 사업시행 선도지자체 선정 결과>

| 지역 | 사업시행기관 | 사 업 구 역 | 비고 |
|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서울 | 서울시 | 구로, 관악, 용산, 중구, 동작, 광진 등 | |
| | 강남구 | 강남구 | |
| | 양천구 | 양천구 | |
| 경기 | 경기도 | 부천시, 안산시, 시흥시, 양평군, 화성시 | |
| | 광명시 | 광명시 | |
| | 수원시 | 수원시 | |
| 인천 | 인천시 | 중구, 동구, 계양구 | |
| | 미추홀구 | 미추홀구 | |
| 대구 | 대구시 | 중구, 동구, 서구, 북구 | |
| 부산 | 부산 남구 | 부산 남구 | |
| 광주 | 광주시 | 북구, 광산구 | |
| 충남 | 천안시 | 천안시 일원 | |

*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광역지자체 최대 7.2억, 기초지자체는 최대 0.8억

- 아울러, 취약계층을 전담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, 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 센터(50개권역)도 '20년에 이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.

< 이주지원 119센터 설치 및 인원 배치 계획 >

| 지역 본부 | 담당 권역 | 119센터 | | 지역 본부 | 담당 권역 | 119센터 |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인원 | 비고 | | | 인원 | 비고 |
| 합계 | 50 | 100 | | | | | |
| 서울 | 7 | 14 | 서울, 의정부, 남양주, 양주 등 | 충남 | 5 | 10 | 대전, 천안, 세종 등 |
| 인천 | 6 | 12 | 인천, 부천, 고양, 시흥 등 | 전북 | 3 | 6 | 전주, 익산 등 |
| 경기 | 6 | 12 | 수원, 안양, 성남, 용인 등 | 전남 | 5 | 10 | 광주, 목포, 순천 등 |
| 부산 | 3 | 6 | 부산, 울산 등 | 경북 | 6 | 12 | 대구, 포항, 구미, 안동 등 |
| 강원 | 3 | 6 | 춘천, 원주, 강릉 등 | 경남 | 4 | 8 | 창원, 김해, 양산 등 |
| 충북 | 1 | 2 | 청주 등 | 제주 | 1 | 2 | 제주, 서귀포 등 |
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이주에 그치지 않고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**낙후된 쪽방촌을 전면 재정비**하고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영등포, 대전역, 서울역 쪽방촌을 대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.
 - '20.1월 영등포 쪽방촌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이후, 다른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공주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대전역, 서울역에 대해서도 추진하게 되었다.
- 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, 거주하시던 쪽방 주민이 입주하시기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며 기존보다 **넓고 쾌적한**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~3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.
 - 또한, 신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**주거이전비***와 **이사비****도 지원받을 수 있다.

*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4개월분으로 현재기준 8백만원 수준 예상

**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며, 현재기준 33㎡이하인 경우 60만원 수준 예상

<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예시 >

| 구분 | 현재 | 개선 |
|-------|---|--|
| 주거환경 |  |  |
| 주거면적 | 1.65m ² ~6.6m ² (0.5 ~ 2평) | 18m ² (5.44평) |
| 월 임대료 | 평균 24.4만원 | 3.7만원 (보증금 183만원*) |

* 입주시점에 통합공공임대 적용 등으로 변동가능

-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1:1 대면 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.

* 대전역 : '20.12월~'21.2월 진행, 영등포역 : '20년 1차 조사 후 2차 조사 진행 예정

- '20년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마친 영등포, 대전역 쪽방촌에 대해 영등포는 올해 안으로, 대전역은 내년 초까지 지구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.

- 지난 2.5(금)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은 올해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.



*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

< 서울역 쪽방촌 조감도 >



*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

-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쪽방 주민은 물론, 토지·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, LH·SH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.
 - 영등포 쪽방촌의 경우 수차례 주민 대책위와의 협의를 통하여 보상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, 대전역, 서울역도 토지주, 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등과 보상 및 이주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.
 - 아울러, 상가 영업자, 종교시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는 주거상향사업과 쪽방촌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, 도심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.
 - 아울러,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필요한 만큼, 현장중심의 의견수렴에 우선 순위를 둔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박승연 사무관(주거상향사업 관련 ☎ 044-201-4740), 공공택지개발과 이태진 사무관(쪽방촌 정비 관련 ☎ 044-201-44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